제4강 율려 또는 여율과 카오스모스

(1교시)

자기조직화의 동양사상에서 발견되는 과학적 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개념들이 약 일곱 가지가 있다. 이것들이 앞으로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 유럽의 자기조직화의 과학원리를 받아들이되 우리 스스로의 전통사상과 연관시키면서 새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여러 파트들이다. 예를 들어 수운 최제우가 외유기화라고 했다. 혜강 최한기 선생은 교적운화라고 했다. 만물화유, 생생화화, 기운생동, 이런 것들에 동아시아 사상의 핵심이 있으므로 여기에 기초해서 '화'자가 붙은 일련의 개념들을 밝혀나가야 한다.
우리 상고대 신화에 홍인인간 이화세계가 있다. 홍익인간은 주체이면서 타자이고 신이면서 자연이면서 또한 인간인 새로운 인간(neo human)이다. 이화세계 즉 세계를 이치로서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때 이치는 로고스요 코스모스일 뿐인가. 분명히 그렇진 않다. 삼국유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로, 환웅이 본디 인간세상을 탐내어 구한다고 했다. 탐구인세. 영적으로는 하느님인 천손 환웅이 인간세상을 탐내어 구한다고 했다. '탐'이라는 말과 '구'라는 말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에게 해당되는가?

수의천하 즉 천하에 신령한 뜻을 두었다고 했다. 천하를 구하고자 하는 아주 신령한 큰 뜻을 두었다. 부부간에 뽀뽀하고 애 낳고 농사 지어 밥 벌어 먹는 인간세상을 탐했는데, 탐한 위에는 아주 거룩한 뜻을 세웠다는 것이다. 앞의 카오스와 뒤의 코스모스가 결합되어 있다. 웅녀의 경우에도 곰 상징으로써 동물적 욕망에 따르는 카오스적 삶을 사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동시에 환웅과 같은 영적 인간이 되기를 절절히 기원하는 코스모스적인 지향이 있다. 우리나라 신화를 그래서 깊이 봐야 한다. 그 안에는 리비도적이고 카오스적인 것이 전제되어있다. 이화세계가 바로 다름 아닌 카오스모스이다. 이화는 바로 자기조직화의 내적 의미인 카오스모스, 혼돈의 질서를 찾는 생명운동이다.

고운 최치원은 나라에 신묘한 도가 있으니 그 이름을 풍류라고 하였다. 그 풍류는 유, 불, 선, 삼교를 애당초 포함하고 있었다. 뭇 생명을 사랑해서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서 존재의 구조를 바꾼다는 말이다.
이 '접화'가 자기조직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이제 따져야 한다. 혜강 최한기가 운화라고 했다. 최제우 선생이 이 '운'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우주 생명의 변동을 운이라고 한다. 화는 그 운을 타고 자기가 집행하는 변화다.
그 다음에 1879~85년 사이에 소위 한국에서 나온 새로운 시대의 주역을 정역이라고 한다. 이 정역을 만든 분이 충청도 연산의 김일부 선생이다. 이 정역을 보면 '신화'라는 말이 나오고 '신화율려'라는 말도 나오는데, 율려를 신화한다는 뜻이다. 신화는 다만 물질이나 생명세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질서, 거룩한 아우라의 세계까지도 인간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조직화한다는 말이다. 물질이나 생명만 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도 조직화한다. 아주 어려운 경지이다.

노자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공동생활을 '아무위이민자화'라고 했다. "나는 아무것도 안하

www.artnstudy.com

는데 백성이 스스로 변한다." 이게 자기조직화다. 동학에서는 무위이화라고 압축되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변화한다. 자기조직화는 유럽에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백성이 스스로 변한다. 여기서 '나'는 성인이다. 이것이 정역에서는 십오일언(十五一言)이라고 해서 우주의 진리를 깨우친 자는 절대로 정치·경제에 손대면 안 되고 오직 도덕, 교육, 문화에만 종사하라는 것이다. 이치만 말하면 된다. 뭇 백성이 지도자 없이 스스로 협동해서 임금, 지식인, 혁명가, 정치가 없이 스스로 자기조직화하는 것을 '민자화'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위대한 전통이론인 동학 우주론의 핵심은 조화(造化)다. 동학에서는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和定永世不忘萬事知)', 바로 이 주문이 핵심이다. 시천주를 설명할 때 천을 설명하지 않고 비워두었기 때문에 창조적 무, 활동하는 무라고 부른다. 끊임없이 일하되 목적을 설정하지 않는 자유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좋다. 신이 신이되 정말로 자유요 무요 허요 공이라면 돌아가야 할 곳도 거기다. 해방, 자유, 텅 빈 활동, 활동을 하되 마음이 텅 빈 상태, 이것이 정말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겠는가. 또한 개인의 깨달음만이 아니라 인류가 가야할 문명의 목표이다. 문명의 목표는 해방 이외에는 없다.

자유의 만개. 성경에도 나온다. '우주만물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물질의 구속 상태에서 신음한다.' 아마도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부분일 것이다. 물질이 전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 물질의 관성(慣性)에 붙잡혀 해방되는 날, 자유가 만개하는 날을 기다리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화엄경의 맨 마지막 구절과도 흡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유인 신이 창조하고 활동하는 신이라면 그 신을 받들고 진행하는 진화는 창조적 진화가 된다. 가톨릭이 그토록 구하는 창조적 진화론, 화엄경과 법화경이 암시하는 창조적 진화론은 조화에서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다.
조화의 조건은 신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 신은 바로 '나'라는 주체이다. 신에 준해서 나의 주체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때 주체가 없는 상태가 창조적 자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가 물질과의 교섭과정에서 해방을 낳고, 다시 해방이 해방을 낳는다. 만약 자기가 기독교의 신처럼 복수하는 자로서 서있으면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 신은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조직화를 이제부터 동아시아 쪽에서 더욱 진전시키고 이것을 예술사상이나 미학적 관점에서 작품, 창작자, 감상자 안에 또는 작품의 구조, 창작자의 주제와 그 표현방법들, 감상하는 사람의 미적 인식태도의 깊이 안에 여러 가지로 응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엔 율려에 대한 보다 깊은 탐색으로 끝이 날 것이다. 율려를 공부하려면 주역과 정역을 공부해야 한다. 중국의 주나라 성립 이후 동양의 꽃, 동양의 과학, 동양의 우주철학으로 누구나 인정하고 유럽과학자들도 아주 부러워하는 것이 주역이다.
주역 뒤에 계사전이라는 것은 공자가 붙인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십익(十翼), 즉 열 개의 날개인데 거기서 '종만물 시만물 막성호간'이라고 했다. '세상의 만물이 다 끝이 나고 새로운 만물이 피어날 때 간방(間方)보다 더 치열한 곳이 없다.' 새로운 만물이 피어난다는 것은 동학의 후천개벽이고 이 후천개벽에 대한 역, 과학이 나오는 곳은 간방이라는 이야기이다.

www.artnstudy.com

중국 중심으로 보자면 간방은 동쪽이다. 간이라는 것이 또한 산을 뜻한다.
그래서 김일부의 정역에서는 중국의 주역에서 불렀던 율려를 여율로 뒤집는다. 율(律)은 남성, 하늘, 건괘(乾卦), 열두 달 중 따듯한 계절이다. 여(呂)는 여성, 차가운 계절, 가치가 낮은 것, 속된 것 등 춥고 배고프고 안 좋은 것이다. 억음중양(抑陰重陽), 여성들에게 전족을 채웠던 것처럼 음을 누르고 양을 존중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남자, 군자를 존중하고 백성, 물건, 동식물, 여성은 다 똑같이 형편없다.
김일부는 이것을 뒤집는다. 정역에서는 '조양율음(調陽律陰)'. 양을 다스리고(調陽) 음을 춤추게 한다(律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평등이겠지만, 평등에 도달하기까지는 음이, 여자가 더 날쳐야 한다. 앞으로 올 시대는 여성성으로 더 기운다. 여성의 육체가 남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우월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곳은 여자가 자혜로운 어머니로서 세상을 부드럽게 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생물을 아끼고 하늘을 존중하는 곳이다. 남자가 이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런 것을 바로 '조양율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역은 율려를 여율로 뒤집어 놓는다. 여는 음-여성-카오스이고 율은 양-남성-코스모스다. 원래 주역에서는 건괘(乾卦)가 율이고 곤괘(坤卦)가 여다. 협종(夾鐘)과 황종(黃鐘)의 관계도 있다. 유럽 이야기로 하면 이것이 카오스모스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이야기하는 카오스 코스모스, 붙여서 카오스모스, 혼돈의 질서다.
이것이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원형으로서 요구된다. 카오스까지는 탈(脫), 해체, 분권, 개별화, 개체중심, 무질서, 가이아, 여성중심, 에로스라고 다 알겠는데, 그로부터 나오는 질서는 무엇인가. 여기까지는 유럽의 학문이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일리야 프리고진 같은 사람은 카오스론에다가 헤겔의 합명제, 진테제(Synthese), 통일의 테제를 끌고 들어가서 봉합해버린다. 봉합하면 카오스의 질서가 아니다. 카오스 나름의 질서여야 한다. 들뢰즈도 카오이드(Chaoid), 즉 카오스로부터 나오는 질서라고 한다. 이것은 원래부터 있는 카오스적 코스모스가 아니다.

이에 비해서 정역은 율려를 여율로 뒤집으면서 카오스모스를 말한다. 1901년에서 1908년까지 활동하다 죽은 유명한 종교가 강증산. 그가 말하길 앞으로는 율려가 후천세상을 다스린다고 했다. 여기서 율려가 새 시대의 율려인데, 걸뱅이 굿, 각설이 타령, 뭐 이런 것들이다. 여율이라는 말이다. 풍물, 판소리, 전부 여율이다. 1879년에서 1885년이면 판소리 반각판이 나오고 탈춤이 사리원이라든가 여러 도시에서 막 유행할 때다. 민요들이 막 돌아다니고 여자 가수들이 나올 때다. 조금 뒤에 이화중선도 나왔다.
이때 소위 자본주의의 첫 싹이 나타났다는 정조 말에 신해통공(辛亥通共)이라는 법령이 있었다. 이것은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해지하는 것이다. 육주비전(六注比廛)이라는 관납업체 등 정부에 허가를 받은 경제인만이 용납되었고 보따리 장사들, 좌판장사들, 난전꾼들, 보부상들은 인정을 안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법령이다. 그만큼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탈춤에 흘러다니는 유목민으로 나타난다.
즉 강증산이 율려, 다시 말해서 여율이 후천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맞는 말이다. 율려가 정치의 기본이라면 여율은 새로운 민중정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민중정치의 기본이 여율이라는 말이다.

이 여율은 동학의 '지기금지 원위대강(至氣今至 願爲大降)'이라는 첫 강령주문에 나온다. 이 뒤가 본주문인 '시천주' 부분이다. '지극한 기운이 지금 여기에 이르러 나에게 풍부히 내리

www.artnstudy.com

시기를 바랍니다.' 강증산은 새 시대의 율려를 바로 '지기금지'라고 이야기했다. '지기(至氣)'는 무엇인가. 최수운은 이 지극한 기운을 '혼원지일기(混元之一氣)'라고 해석했다. '혼원(混元)'은 혼돈한 근원이요 '일기(一氣)'는 동학에서 태극이다. 태극은 음양의 질서, 열두 달의 질서이고, 코스몰로지(cosmology), 우주론, 질서다. 혼원지일기는 혼돈의 질서다.
'지기금지 원위대강'은, '지기, 혼돈의 질서가 지금의 율려로서 나에게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칼놀이다. '시호(時乎) 시호 이내 시호 부재래지(不再來之) 시호로다.' '때다, 때다, 나의 때다, 다시는 오지 않을 나의 때가 왔도다.' 여기서 '나'는 민중이다. 짓밟히고 억눌린 민중의 때가 왔다는 것이다. 이제 우주를 바꾸는 대약동의 때를 시작하자는 말이다. 이게 율려고 다시 말하면 여율이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예술과 생명과 과학 사이의 관계를 다시 보아야 한다. 이런 원리들은 이것대로 보존하면서 동시에 이 원리에 입각한 동양적 과학 또는 서양의 진화론과 생물학이 결합된 자기조직화, 재진화, 확충의 과학과 연결시키면서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새로운 디지털적 매체 안에서 새로운 수적 질서로서 이것을 대응시켰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서 되받을 수 있는 것을 희망해야 한다. 바로 새로운 민중예술, 새로운 민중적 미학을.
『삼일신고(三一神誥)』라는 옛 경전에 '신은 뇌에 내려와서 산다'라는 말이 있다. 사천 년 전에 이야기다. 달을 보고 신이라고 하고 별을 보고 신이라고 엎드렸던 그 시절에 신은 인간의 뇌 속에 산다고 말했다. 요새 미국의 뇌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고 테야르 같은 사람은 벌써 사오십 년 전에 우주와 인류의 진화사는 이제 뇌 연구를 통해서 날아가는 화살이라고 했다. 과학의 최첨단은 뇌 과학이라는 뜻이다. 이 뇌 과학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디지털 세계다.
율려와 뇌의 관계, 우주생명과 인간의 무의식 사이 관계, 생태학적 세계인식과 인간의 내면적 명상의 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 주어져있는 현대인들의 숙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가보자.

www.artnstudy.com